

제주지명 수집·연구의 斷想

오 창 명*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잘못된 제주지명 표기와 해독
3. 마무리

1.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제주지명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제주지명에 관한 관심이 느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우선 고향에 대한 관심은 물론 가장 제주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새주소부여사업의 일환으로 고유지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데도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지명을 피상적으로 수집, 정리하고 피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지명을 수집·정리하고 연구할 때는 다음 세 가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는 정확한 소리를 찾아 쓰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정확한 소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리에 대응하는 뜻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해당하는 지명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국어학의 입장에서는 첫째와 둘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리를 잘못 표기하게 되면 제대로 뜻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엉뚱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주지명의 수집과 정리,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자 대부분은 전문적인 지명 연구자가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보니까 소리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나아가 뜻을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글은 이러한 예들 중 몇 가지를 뽑아, 지명을 제대로 기록하고 제대로 해석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2. 잘못된 제주지명 표기와 해독

2.1 한림읍 금악리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의 설촌 및 지명 유래를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 자료나 근거가 없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논문(오창명, 1997)과 책(1998:345-346), 북제주군지(2000:上, 1044-1045) 등에서 언급을 했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한탄할 수밖에 없어서 다시 강조하려고 한다.

1987년 금악초등학교(당시는 금악국민학교)에서 만들어진 『향토지(금악, 상명)』의 '설촌 및 지명 유래'(10쪽)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마을의 설촌 및 지명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인 1550년께 상명리에 거주하던 진주강씨(입도시조 姜哲의 6대손 姜姬裁: *裁는 載의 잘못임.) 일가가 금악리로 이주하여 부락중심 이복을 점하고 남양홍씨가 이남을 점하여 설촌되었다 한다.

그 후 약 100년이 지난 후 탐라양씨와 밀양박씨가 입주하고 50여 년 후에는 경주김씨가 입주하게 되었다.

이후 각 성씨가 입주케 되어 현재 16개 성씨에 이르며 290가구에 1170여 명이 부락을 형성하고 있다.

○ 지명 유래 : 설촌 당시에는 水流村이라 칭하여 오던 중 부락에 높은 산악이 있는데 그 岳勢가 거문고(琴)를 타는 여자의 형이라 하여 1623년 경에 村名을 琴勿岳이라 정하고 水流村에서 분리하였다.

지금 ‘검은오름’이란 것은 금물오름의 부름이며 그 후 琴岳이라 칭하여 오다가 約 150여 년 전에 약자로 수자를 쓰기 시작한 것이 今岳으로 개칭되었다.”

한편 제주도청의 ‘제주의 마을’ 사이트(<http://www.jeju.gov.kr/vill/menu/villmain1.html>)의 ‘마을약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인 1550년께 상명리에 진주강씨 일가가 이 마을로 이주하여 동네 북쪽을 차지하고 남쪽에는 남양홍씨가 차지하여 설촌한 것으로 전해온다.

그 후 약 100년만에 탐라양씨와 밀양박씨가 입주하고 또 50여 년 후에는 경주김씨도 입주하게 되었다.

설촌 당시에는 “수류촌(水流村)”이라 불리워 오다가 이 마을에 있는 오름의 모습이 거문고를 타는 여자형인 데서 1623년께 금물악(琴勿岳)이라 해서 “수류촌”에서 분리했다. 그 후 琴岳으로 표기해 오다가 지금부터 150여 년 전쯤에 今岳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이 마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한 기록도 없고 참고할만한 문헌도 없으며 상세히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내력을 알기가 어렵다. 다만 전해오는 이야기와 제남일보에 연재되었던 “제주의 향사”에 설촌연도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여기에 문화혜택이 없었던 시절에 구전된 이야기라 하여 많은 어른들이 양해가 있었으면 하고 또한 주변이 여러 마을이나 각급 행정기관에서 퍼낸 향토의 약사와 마을에 최초로 입주하였다는 설촌 시조 강응선(姜應善)씨의 가사록 등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

혀둔다)

〈중략〉

이 마을에서는 여러 성씨가 살았으며 선조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문화의 변천 과정에서 여러 성씨의 공동생활 실태와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마을에는 광활한 토지(목야지)가 있어서 목축의 적지로 중국의 원나라(몽고)에서 설정한 목장(6소장)이 끼어있으며 몽고의 지배 하에 100여 년 동안이나 목축을 계속하다 고려 공민왕 17년(서기 1386년) 원나라가 폐망함으로 인하여 목자(牧子)들이 원나라로 귀국하였는데 일부 귀국하지 못한 목자의 후손들이 수류천(水流川=옛 마을 이름) 주변 여기 저기에 산재하여 살았다고 한다.

이 목자들이 지역에 산재한 원주민들과 결혼하여 금악리에 입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 중에는 성(姓)을 모르는 자가 많았으며 그들은 마을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근심한 생활을 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혼혈족들이 빈곤한 생활과 한스러운 고독감, 비열감 등을 덜어주고 잘 보호하여 원주민과 다름없는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기 위하여 그들을 교육시키고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호적이 없는 자들을 다른 집안에 양자로 입양시켜 주거나 솔자-거느려 사는 사람-로 입적시켜 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

서기 1594년(조선조 27년)에 이곳 수류천리 피문악(皮文岳=갯거리) 동쪽 소와리물 동편에 집터를 정하여 입주한 어른이 계공랑훈도 강응선(姜應善)이며 이 분이 금악리에 처음 입주한 어른이 되는 셈이다.

이 어른이 수류천리 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혼혈족 노비들을 호적에 솔자로 입적시켜 살면서 황야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목축에 힘쓰면서 살기 시작한 것이 마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내려 오고 있다.”

위 두 내용은 마치 소설과 같이 꾸며낸 이야기와 같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터넷에까지 버젓이 올리고 있는 도청 관계자와 마을 관계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의 내용을 보면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 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중종실록』 16년(1521) 3월 임술(10일)에 보면, “제주 목사 이운이 치계하여 유망하거나 죽은 사람의 공채와 건감 등 제반에 관해 아뢰” 기사

를 볼 수 있다.

“제주 목사 이운이 치계하기를, ‘...대정(大靜)은 인물이 거의 다 유망(流亡)되었으니, 본주의 금물악리(今勿岳里)를 떼어서 예속시키게 하소서. 또 원래부터 살던 사천에 대해서는 공천으로 바꾸어 목자(牧子)를 삼게 하소서...’라고 하였다.”(濟州牧使李紘啓曰...大靜人物流亡殆盡 請割本州今勿岳里屬之...)

이는 이 마을에 대한 역사 기록으로, 현재까지 가장 오랜 것이 아닐까 한다. 증종 16년은 1521년이다.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구전으로 전하는 설촌 유래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1987년에 나온 『향토지(금악·상명)』의 ‘설촌과 지명 유래’와 제주도청의 ‘제주의 마을’ 홈페이지에 보이는 한림읍 금악리 ‘마을약사’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기록은 오창명(1997, 1998, 2000)에 이미 소개가 되었지만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아직도 잘못된 구전에 의한 것만 설촌 유래로 소개하고 있다. 심지어는 금악리 수산강씨 종가의 전답문서 중 하나인 『順治拾伍年戊戌 正月貳拾陸日 姜姬載明文』에도 今勿岳里로 표기된다. 順治 15년은 1658년이다.

그러므로 위 금악리 설촌 유래는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로, 지금부터 400여 년 전 1550년께 설촌되었다는 이야기가 잘못되었다. 적어도 이 마을은 1521년에 今勿岳里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1400년대에 이미 설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더 올라갈 것이다.

둘째로, 1623년 경에 村名을 琴勿岳이라 정하고 水流村에서 분리하였다는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마을의 오름 이름이 琴勿岳이 아닌 今勿岳이라 했기 때문에 오름의 지세가 거문고(琴)를 타는 여자의 형태라는 데서 琴勿岳이라 했다는 설명도 맞지 않고 水流村에서 분리했

다는 설명이 맞지 않다.

셋째로, **수岳**이라는 표기도 적어도 18세기 중반의 고문서에 나타나므로 150여 년 전에 **琴岳**이라 하다가 **수岳**이라 했다는 것도 잘못이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 이원진의 『탐라지』에 **黑岳**이 보이고, 같은 책에 感恩德川으로 표기되어 있다. 『탐라순력도』(「한라장축」)과 「제주삼읍도 총지도」 등에는 **黑岳**과 **黑岳村**으로, 『탐라방영총람』(방리, 우면)과 1700년대 중반의 고문서 등에는 **수勿岳**리와 **수岳**으로, 「제주삼읍전도」(구우면)에는 **黑岳**과 **수岳**리로, 『제주군읍지』(「제주지도」)와 일제강점기의 『제주읍지』(제주읍지, 방리, 구우면)에 “**‘금을오름’**은 제주에서 서남쪽으로 73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75호, 남자는 196명, 여자는 267명이다(수勿岳里, 西南距七十三里, 民戶七十五, 男一百九十六, 女二百六十七).”, 『삼군호구가간총책』(제주군, 구우면)에 “**‘금을오름’**의 연가는 108호이다. 남자 241명과 여자 265명을 합하여 506명이고 기와집 9칸과 초가 265칸을 합하여 274칸이다(수岳, 烟家一百八戶, 男二百四十一口, 女二百六十五口, 舍五百六口, 瓦家九間, 草家二百六十五間, 舍二百七十四間).”라고 하였다.

수勿岳리는 ‘**금을오름**ㅁ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수勿**은 오늘날 한자음이 ‘**금물**’이지만 ‘**금을**’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중세국어의 ‘**거물**’[黑]에 대응하는 것이다.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고 **리**는 ‘**ㅁ을**’>**ㅁ을**>**마을**의 훈독자 표기이다. **수岳**리는 **수勿岳**리에서 둘째 음절 **勿**[물]을 생략하여 표기한 것이다. **黑岳村**은 ‘**금을오름**ㅁ을’ 또는 ‘**검은오름**ㅁ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黑**은 ‘**금을**’ 또는 ‘**검은**’의 훈독자 표기이다.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 **村**은 ‘**ㅁ을**’의 훈독자 표기이다. **수勿岳**리와 대응하는 것이므로, **黑岳村**도 ‘**금을오름**ㅁ을’로도 읽을 수 있다. 19세기 초반부터 **수岳**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2 표선면 가시리의 ‘역머리왓’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에 ‘역머리왓’ 또는 ‘영머리왓’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의 지명은 그 소리도 확실하지 않고 뜻도 확실하지 않아서 오늘날까지도 혼란을 야기하는 곳 중 하나이다.

제주도청에서 운영하는 ‘제주의 마을’이라는 홈페이지(<http://www.jeju.go.kr/vill/>)의 ‘표선면 가시리’ ‘마을약사’에서는 ‘용머리왓동네’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곳의 ‘지명유래’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설명하고 있다.(이 내용은 그대로 남제주군청 마을 홈페이지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http://namcheju.net/korean/>)

영머리왓(용머리왓) 동네

풍수지리설에 이곳 지형이 용머리 형국이라 하여 용머리왓이라고 하며, 또한 가시리마을 좌청용 줄기가 이곳에 뗏어 있어서 용머리왓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역머리왓 또는 영머리왓(* 필자 주: ‘영머리왓’의 잘못)이라 불리우기도 했다.

뒤에 한자표기에 있어 용두동 역지동, 역두동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용두동(龍頭洞)”으로 통일 표기하게 되었다.

이 내용은 1986년에 가시초등학교에서 만든 향토지의 내용 그대로를 옮긴 것이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일대의 지명은 ‘용머리왓’ 또는 ‘영머리왓’, ‘역머리왓’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머리왓’이나 ‘역머리왓’은 발음상 같은 것이 된다. 다만 ‘용머리왓’은 ‘영머리왓’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 소리는 변하는 과정에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용머리왓’과 ‘영머리왓’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해석이 너무도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동일한 지명에 대해서 1996년 남제주군에서 만든 『남제주군 고유지명』이라는 책의 704쪽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용머리왓동네/역머리왓/영머리왓/용두동(龍頭洞)

- 위치 : 가시리 987번지 부근
- 유래와 현황 : 이 지역 일대의 지형지세가 용머리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이 마을 좌청룡 줄기가 이곳에 이르러 멎었다고 한다.
「역머리왓」 또는 「영머리왓」이라고도 불리운다. 한자표기화에 의해 <용두동(龍頭洞)> <역지동> <역두동>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지금은 용두동(龍頭洞)으로 통일하였다.

이 내용은 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마을의 버스정류장 표지판(2개가 있다)에는 아주 분명하게 '역지동(歷地洞)'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의 이장은 물론 마을 관계자들 대부분이 이 동네를 '역지동'이라 한다는 것이다. 위 두 번째 내용 그대로 믿는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용두동(龍頭洞)이라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역지동'으로 쓰고 있고 역지동(歷地洞)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1910년대에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때의 50,000분의 1지도에는 靈旨洞으로 표기되어 있다. 1960년에 제주도관광안내소에서 펴낸 진성기 편 의 『제주도 지명 의 유래』 87쪽에는 “역두동(逆頭洞) 「영머리왓」 :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설촌한 부락인데, 지형상으로 보아 「영머리왓」으로 불리우던 것이 후에 한자표기에 의해서 '역두동'으로 호칭함.”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1986년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지명총람 16(전남편Ⅳ·제주편)』의 가시리편에서 '영두동(迎頭洞), 영지동(靈旨洞), 영머리왓' 등 3항목이 표제어로 올라있고, '영두동(迎頭洞), 영지동(靈旨洞)'이라는 항목을 찾으면 '영머리왓'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 '영머리왓' 항목을 찾으면 “영머리왓[영두동, 영지동] [마을] 가시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1992년에 나온 오성찬의 『제주도토속지명사전』 53쪽에는 “영머리왓 囿 逆頭洞의 옛 이름. 가시리 동남쪽에 있는 동네”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립지리원 발행의 5,000분의 1 지도와 25,000분의 1 지도에는 '영지동'(이의 한자 표기가 靈旨洞인지는 확실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이곳의 지명 조사를 새로이 행하였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영머리왓’]이라고 발음하였다. 이 발음을 토대로 하면 ‘영머리왓’으로 쓸 수도 있고 ‘역머리왓’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주변의 오래된 묘비를 찾아서 그곳에는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주변에 흩어진 오래된 비석을 모두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표기들을 확인하였다.

하나는 逆頭田員과 力頭田員이고, 다른 하나는 ‘영머리왓’과 ‘영머리왓도리’라는 것이다.

逆頭田員과 力頭田員은 모두 ‘역머리왓도리’ 정도를 한자를 차용하여 표기한 것이다. ‘영머리왓’과 ‘영머리왓도리’는 모두 소리나는 대로 쓴 것이다. ‘도리’는 ‘ㄷ리’, ‘도랑’으로도 쓰이는데, 일정한 지대 또는 지경(地境) 정도의 뜻을 가진 제주방언이다. 한자표기로는 주로 員으로 쓰인다.

이상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선면 가시리의 ‘역머리왓’은 일찍부터 ‘역머리왓’이나 ‘영머리왓’ 정도로 불렸다는 것이다. 그것을 한자를 빌어 쓴 것이 逆頭田, 力頭田, 迎頭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의 발음에서 ‘영머리왓’은 ‘용머리왓’으로 변했거나 아니면 ‘영머리왓’의 ‘영’을 ‘용’의 잘못이라고 인식하고 한자를 빌어 표기한 것이 龍頭洞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왜 지금도 마을의 버스정류장 표지판에는 ‘역지동(歷地洞)’이라고 쓰여 있고(마을의 이사무소에서다 공식적으로 ‘역지동’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 90여 년 전에 기록된 지도나 과거에 조사된 자료에서는 ‘영지동(靈旨洞)’으로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조사된 자료에서는 용두동(龍頭洞)으로 통일하여 쓰고 있다고 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날 ‘머리’로 불리고 전해지는 말이 ‘ㄹ리>마루’(旨) 또는 ‘ㄹ리·ㄹ리’(旨)의 변음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ㄹ리>ㄹ루>마루’를 한자를 빌어쓴 것이 旨이고, 이 旨를 엉뚱한 한자인 地로까지 잘못 쓰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민간에서는 일찍부터 ‘역머리왓[영머리왓]’ 또는 ‘영머리왓’ 정도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머리’는 ‘머르’(湄)의 변음이고, ‘왓’은 ‘밭’의 제주방언으로 주로 모음으로 끝나는 말이나 ㄹ로 끝나는 말 뒤에서 실현된다. 문제는 ‘역’인지 ‘영’인지 맨 앞에서 실현되는 말의 소리가 정확히 ‘역’인지 ‘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한자 말이 아니고 순 우리말일 것으로 생각하나, ‘역’인지 ‘영’인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민간에서 불리는 지명을 바르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바르게 기록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아직도 마을에서도, 군청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까지 혼동을 보이는 이 동네의 마을 이름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2.3 표선면 가시리 ‘갑선이오름’

표선면 가시리에 표고 188미터의 오름인 ‘갑선이오름’이 있다. 이 오름의 뜻과 해석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1960년에 나온 진성기 편 의 『제주도 지명의 유래』 87쪽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갑선악(甲蟬岳), 「갑선이오름」

산 모양이 굽병이와 비슷하므로 「갑선이오름」이라 불리우던 것이 후에 한자표기에 의해서 「갑선악」으로 호칭함.

이와 같은 해석과 설명은 그 뒤에 나온 지명자료집 대부분에서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갑선악(甲蟬岳) → 갑선이오름.

갑선이오름[갑선악] : 가시오름 북동쪽에 있는 산. 높이 188m. 갑선(곰벥이)처럼 생겼음.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6(전남편Ⅳ·제주편)』

갑선이오름(甲蟬岳) : 높이 188m. 산 모양이 갑선(곰벥이)과 비슷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

- 오성찬, 『제주도토속지명사전』(1992:53)

갑선이/갑선이오름/갑선악(甲蟬岳)

· 위치:가시리 산 2~7번지

· 유래와 현황 : 이 오름의 지형지세가 마치 꺾질을 못벗는 매미번데기와 같다 하여 꺾질 속의 매미를 일컫는 한자어를 빌어와 붙여진 이름. 한자표기화에 따라 「갑선악(甲蟬岳)」이라 표기하며 높이는 188.2m

- 남제주군, 『남제주군 교유지명』(1996:691)

이와 같은 해석에 부정적인 견해가 김종철의 『오름나그네 3』(1995:294)에서 제기되었다.

산 모양이 미처 꺾질을 벗지 못한 곰벥이처럼 생겼다 하여 갑선이오름(甲蟬岳)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하필이면 곰벥이에 비유됐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제 한자명이라는 것에 석연찮은 구석이 남는다. 옛 지도나 묘비에는 갑선악(甲旋岳) 또는 갑선악(甲先岳)이라는 표기가 더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곰벥이에 연유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는다.

- 김종철, 『오름나그네 3』(1995)

오창명(1998)에서는 옛 문헌과 지도의 표기들을 고찰하여 한자표기 甲蟬은 단순히 음차표기임을 주장하였다. 1700년대 초반에 그려진 『탐라순력도』(「한라장축」)와 「탐라지도」, 『해동지도』(「제주삼현도」) 등에 모두 甲先岳으로 표기되어 있고, 1910년대에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때의 50,000분의 1 지도와 『증보 탐라지』(산천) 등에 甲旋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주

변의 묘비에는 ‘甲先伊岳·甲先岳·甲仙岳·甲禪岳·甲蟬岳·甲旋岳’ 등으로 표기되었으나, 오래된 묘비 대부분은 甲先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오늘날 지도에는 ‘갑선이오름’으로 표기하였다.

한자 표기 甲先伊岳·甲先岳·甲仙岳·甲禪岳·甲蟬岳·甲旋岳 등은 모두 ‘갑선이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甲先伊岳이 민간에서 불리는 ‘갑선이오름>갑선이오름’을 가장 정확하게 차자표기한 것이 된다. 나머지 표기는 모두 세 번째 음절 ‘-이’를 표기에서 생략해 버린 것이다. 甲은 ‘갑’의 음가자 표기, 先과 旋, 仙, 禪, 蟬 등은 ‘선’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갑선이’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한자 표기 甲蟬岳만 중시하여 굵벙이처럼 생긴 데서 붙여졌다고 하는 설은 믿을 수 없는 민간어원설에 불과하다. 그 뜻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방증자료가 나와 해석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억지 한자 표기를 해석하여 억지로 해석을 하거나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은 선조들의 사상을 왜곡하는 것이다.

2.4 구좌읍 김녕리 ‘게웃새물·게우샘물’

구좌읍 김녕리에 ‘게웃새물·게웃새물’ 또는 ‘게웃샘물·게웃샘물’이라는 샘물과 ‘게웃새굴·게웃새굴’ 또는 ‘게웃샘굴·게웃샘굴’이라는 굴이 있다. ‘게우’ 또는 ‘게웃’은 ‘전복’의 창자를 일컫는 제주방언이다. 박용후의 『제주방언연구(자료편)』(1988:62)에서 “게웃: 전복창자”를 확인할 수 있다. ‘새미’는 표준어 ‘샘’[泉]의 제주방언으로, ‘새미’는 ‘새미’ 또는 줄여서 ‘새·새’, 그리고 ‘샘·샘’ 등으로도 실현된다. ‘물’은 말 그대로 ‘샘’을 이르는 말에 덧붙은 말이다. ‘굴’도 말 그대로 ‘굴’을 이른다. 곧 ‘게웃’과 닮은 모양을 한 물통에서 솟아나는 샘이라는 데서 이름이 나오고, 그 샘에 있는 굴을 이르는 이름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한글학회에서 만든 『한국지명총람』(16 전남편Ⅳ·제주편)의 ‘동김녕리’ 편에서는 이 지명이 확인되지 않고, 오성찬의 『제주토속지명

사전』의 '김녕리' 편에서는 '개웃세동굴' 만 확인된다. 북제주군에서 수집한 지명 자료에는 '개웃샘' 이라고 표기하고, 설명에서는 '전복의 개웃 형태를 한 샘이라는 데서 유래' 하였다고 했다.

이 샘에 있는 표지석에는 '개웃샘물' 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만장굴의 표지판에는 '개우셋굴' 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만장굴 입구의 안내판에는 '개우셋굴' 이라는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원래의 소리는 '개웃샘물, 개웃샘굴' 정도인데, 이를 '개웃샘물, 개우셋굴' 등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전복창자를 이르는 제주방언 '개웃' 이라는 말과 '샘' 을 이르는 '세미' 의 변음 '세' 를 발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샘' 의 뜻으로 '세' 가 실현되는 경우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제주시 회천동의 'ㄹ는세막을' 의 '세' 도 바로 '샘' 을 이르는 제주방언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명의 바른 표기와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지명을 조사하고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의 언어학 또는 국어학, 방언학 지식이 많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5 한림읍 명월리 '짐수내'

한림읍 명월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내를 '짐수내' 라고 한다. 그런데 이 '짐수내' 을 잘못 쓰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주도청의 '제주의 마을' 홈페이지 명월리 편 '풍물·민속' 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감수내 못(•필자 주:짐수내못의 잘못)

넓이는 약 100여 평에 달하며 깊이는 약 1.2-2.5m 정도이다. 조성연대는 서기 1590년대로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 마을이 조성될 당시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절간(寺)을 지으면서 조성된 연못으로 위쪽 연못은 식수용으로 아래쪽 연못은 가축 급수용으로 조성하였는데 그 후 절간이 폐허가 되면서 연못은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여 '김수내(김씨내) 못' 이라고

불렀다.

그 후 마을이 차츰 커지면서 이 연못은 생명수의 원천이라는 뜻으로 '금수천'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다. 조선 당시 식수로 사용하던 연못은 폐쇄되고 가축급수용인 아래쪽 연못은 농업용수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 16(전남편Ⅳ·제주편)』(1986) 477쪽에서는 '짐수내물'이라는 항목을 내세우고 '냇가름 동쪽에 있는 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에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짐수내' 또는 '짐숫내', '짐수내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금악리에 보관되어 전해오고 있는 '수산강씨 종가의 전답문서' 중 '萬曆貳拾伍年 丁酉 拾壹月拾柒日 姜應善前明文'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金水川員下畝 租種捌升付只"가 그것이다. 이것을 해석하면 '짐숫내 지경의 알논 나록(법씨) 8되 부치기'가 된다. '만력 25년'은 선조 30년(1597)을 이른다. 이때 이미 '내'의 이름으로 '짐수내' 또는 '짐숫내'가 한자차용표기인 金水川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존재했던 지명임이 확실하다. 또한 위 문서의 소지(所志)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牛屯里居故良女恩盃亦 地字牧子奴三孫乙 率居使喚時 同色馬督促乙仍于 里以西邊金水川員 租種八升付只畝...等田畝乙 矣祖父亦中 許給..."이 그것이다. 이를 해석하면 "...헛둔막을(지금의 상명리에 있었던 한 마을이름이다.)에 살던, 죽은 양녀 은배가 지자의 목자인 사내종 삼손을 거느려 살면서 부릴 때 동색마를 독촉하였기 때문에 마을 서쪽에 있는 짐숫내 지경의 나록(법씨) 8되부치기의 논...등의 전답을 나의 할아버지에게 허락하여 주고..."가 된다. 이 소지는 辛丑年(신축년:선조 34, 1601)에 올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보다 훨씬 전부터 '짐숫내'라고 불렀고 이를 한자차용표기로 金水川으로 표기했음을 알 수가 있다. 주변의 비석에도 대부분 金水川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짐숫내'가 명월리 중동을 흘러내리는 '건남내(?)'를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절간(寺)을 지으면서 조성'한 못 또는 물이라는 데서 '김씨네 못' 또는 '김씨네 물'이라는 소리

가 변하여 '짐수네 못' 또는 '짐수네 물' 이라고 했다는 것은 완벽한 민간어원설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민간어원설에 따라 제주지명을 표기하고 설명하다가는 원래의 제주지명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2.6 서귀포시 서흥동 '숫밭내'

서귀포시 서흥동과 호근동 경계를 흘러서 천지연폭포로 흘러 들어가는 내가 있다. 이 내를 오늘날 '손반내, 선반내, 솜반내, 섬반내' 등으로 부른다. 이 지명 역시 표기와 설명에서 주의해야 한다.

천천(泉川), 숫밭내, 연외천(淵外川)

이 하천은 땅 속으로부터 물이 솟아나므로 「숫밭내」라 불리우나, 한편 이 솟아오른 물이 흘러내려 천지연의 큰못을 이루고 있기로 「연외천」이라 호칭함.

- 진성기, 『제주도 지명의 유래』, p.107-108

숫밭내[연외천, 천천]

서흥동 북쪽, 시오름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서 호근동에 이르러 동남쪽으로 꺾이어, 호근동과 서흥동의 경계를 이루면서 천지연폭포를 이루고 서귀항으로 들어감.

연외천(淵外川) → 숫밭내.

천천(泉川) → 숫밭내.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6 전남편Ⅳ·제주편), p.489

위 두 자료집에서 '숫밭내', 연외천(淵外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의 자료집은 이들과 다르다.

선반내·솜반내 : 천지동 서쪽에서 바다 쪽으로 흘러내리는 내의 상류. 그 하류에서 천지연내가 됨.

- 오성찬, 『제주토속지명사전』, p.159

웃솜반내

- 위치 : '합내골'에서부터 '솜반내'까지 이르는 물줄기이다.
- 이름 : '솜반내'를 이루는 서쪽의 원천수이다
- 주변 : '솜반천'과 합쳐져서 천지연의 원류가 된다.

솜반내

- 위치 : 서흥동 1225-1번지 서쪽 '고냉이소'로부터 남쪽으로 천지연 폭포에 이어지는 내를 말한다.
- 이름 : 홍로천(烘爐川), 연외천(淵外川), 생수가 흐르는 마을 서남쪽의 내를 말하며 '솜반내'의 어원은 전해지고 있지 않다.
- 주변 : 천지연폭포의 원류가 되는 하천이다.
- 서귀포시, 『서귀포시지명유래집』, p.223

위 두 자료집에서는 '솜밭내'를 아예 '솜반내'로까지 표기하고 있다. 위 『서귀포시지명유래집』의 내용은 인터넷 '인포제주(서귀포종합관광안내시스템 : <http://www.infojeju.com>)'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문제는 주변의 식당 이름이나 길 이름 등에서도 '손반내, 선반내, 솜반내, 섬반내'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그 뜻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너무나 다양해서 어느 것이 원말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

이 내는 고려시대에 제주의 속현으로 洪爐縣에 있었기 때문에 한때 洪爐川으로 표기되었다. 조선 중기에는 서귀진이 설치되면서 西歸川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때의 50,000분의 1 지도 등에서 淵外川으로 표기되었다. 민간에서는 '손반내, 선반내'라고 한다.

원래 이 내는 '솜밭내' 정도로 불렸다. 洪爐川은 옛 洪爐縣을 흐르는 내라는 데서 유래한 것이고, 西歸川은 옛 서귀진 옆을 흐른 내라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민간에서 '솜밭내'라고 불리던 것을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 淵外川이다. '천지소'(천지연폭포로 이루어진 소) 밖에서 흘러내리는 내라는 뜻이다. 이 '솜밭내'가 민간에서 소리가 변하여 '손반내' 또는 '선반내' 등으로 변하고, 이것이 다시 '솜반내' 또는 '솜반내'로까지 변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민간에 남아있는 소리를 적을 때 완벽

하게 소리나는 대로 적을 것인가, 아니면 원형을 밝혀 적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고 한다면 다양한 변이형들 중에 어느 것을 대표로 정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표형은 변이형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주방언 그대로를 적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표준어로 바꾸어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지명학자들이 모여 고민하고 의논하여 정해야 하는 것이다.

3. 마무리

최근 제주지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주도적으로 행하는 새주소부여사업으로 인해서 고유 지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 대부분은 지명에 문외한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지명유래집 등을 만드는 일에 관여한 사람들 대부분도 지명에 거의 문외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나온 지명유래집일수록 지명을 엉뚱하게 표기하거나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제주지명을 새롭게 조사,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듣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함은 물론 한국어, 제주방언에 대한 지식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한글맞춤법, 제주방언표기법 등에 대해서도 잘 알아둬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제주도청의 '제주의 마을' 사이트나 서귀포시청의 '인포제주' (서귀포종합관광안내시스템) 등을 통해서 그대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내용을 아무런 여과 없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통한사라 아니할 수 없다.

제주지명을 제대로 찾아 정리하고 해석하는 일은 제주인의 정체성을 되찾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종철(1995), 『오름나그네』, 도서출판 높은오름.
남제주군(1996), 『남제주군 고유지명』.
서귀포시(1999), 『서귀포시지명유래집』.
오성찬(1992), 『제주토속지명사전』, 민음사.
오창명(1998), 『제주의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진성기 편(1960), 『제주도 지명의 유래』, 제주도관광안내소.
북제주군(2000), 『북제주군지』

제주도청의 '제주의 마을' (<http://www.jeju.go.kr/vill/>)

서귀포종합관광안내시스템(<http://www.infojeju.com>)